

한우 육종 농가와 협력하여 한우 개량 사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28일,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한우 육종 농가 방문
- 농가, 한우 씨수소 개량 사업 참여로 우량 수송아지 생산 보람
- 임 원장, 탄소 저감 한우 사양기술 개발에 농가 협력 방안 찾을 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2월 28일, 한우 씨수소 생산을 위한 개량 사업 참여 육종 농가(충남 금산군)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한우 육종 농가 사업을 통해 암소 능력을 개량하고 우수 송아지를 생산해 도체중 및 육질 등급이 향상됐다는 농가 사례를 듣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한우 육종 농가는 질병 검진, 친자감정 및 혈통정보 관리, 능력검정 등을 통해 암소를 관리한다. 이렇게 관리한 우수 암소가 계획교배로 생산한 우량 수송아지(당대검정우) 가운데서 씨수소를 선발한다.

이날 방문한 농장은 2014년에 육종 농가로 선정돼 10년 동안 한우 개량 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보증씨수소 2마리를 배출했다. 또한, 임진표 농장 대표는 한우 육종 농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한우 개량과 사육 기술(노하우)을 전수하는 ‘한우사관학교’를 운영하며 귀농 및 청년 한우농가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임 대표는 도 축산연구소에 우량 암소를 보급해 수정란 생산에 활용토록 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우수 암소 경매 제도가 다시 활성화되면 육종 농가가

보유한 좋은 암소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탄소 저감 한우 사양기술 개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관련 실험을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임기순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탄소 저감을 위한 저메탄, 저단백 사료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한우 육종 농가와 협력해 실증사업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붙임.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책임자	과 장	박병호 (041-580-3310)
		담당자	연구관	박미나 (041-580-3355)



붙임 관련 사진

□ 충남 금산군 한우 육종농가 방문 사진

